

진학·진로 교사들과 함께 하는 2013 대입 스터디

⑨ 대입지원 전략

표준점수·백분위, 유리한 전형 찾아라

대학별 환산점수 적용 방식 달라… 정시모집 최대 변수

오는 11월 8일 치러지는 2013학년도 대학수능능력시험의 성적은 각 영역별로 등급, 표준점수, 백분위로 구분해 같은 달 28일 개별 통지된다. 성적표에 표기된 등급은 수시전형의 최저학력기준의 통과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점수로 활용된다. 표준점수와 백분위는 정시모집에서 대학별로 반영방법과 영역 반영 비율로 다양하게 적용돼 대학별 점수로 산출된다.

서울지역 상위권 대학은 주로 표준점수(언·수·외)와 백분위에 의한 변환 표준점수(탐구)를 활용한다. 또 표준점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변환점수(고려대·전남대 등)를 활용하는 대학과 백분위(광주교대·조선대)를 적용하는 대학도 있다.

따라서 수험생들은 자신의 점수로 표준점수 및 백분위 중 어떤 것이 더 유리한지 철저히 따진 후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또한, 정시모집에서는 대학별로 반영비율(주요대학 영역별 반영비율 표)을 수능 영역마다 달리 적용하기 때문에 동일한 총점이라 하더라도 개인별 점수가 달라져 합·불합격을 결정하는 중대한 변수가 된다. 뿐만 아니라 같은 점수대로 하더라도 인문계열은 언어, 수리·외국어 3개 영역을 고루 잘하는 학생이 유리하고 자연계열은 수리, 탐구(과학)영역을 잘하는 학생이 좀 더 유리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대학 영역별 전형특징 살펴야=서울 대의 경우 인문·자연계에서 수리영역의 반영 비율(인문: 29.5%, 자연: 31.3%)이 높고 탐구영역의 반영 비율(인문: 17.7%, 자연: 18.7%)이 낮은 편이다.

연세대의 인문계열은 언어·수리·외국어의 반영 비율이 매우 높고, 탐구영역의 반영 비율이 낮은 반면, 자연계열은 수리, 탐구영역의 반영 비율을 둘 다 매우 높다.

고려대의 반영비율은 연세대와 같으나, 특이한 점은 자체 변환 표준점수제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자연계 우선선발에서 수리·외국어·탐구영역만 반영하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성균관대학교는 타 대학과 달리 우선선발과 일반선발을 구분한다. 우선선발에서 인문계는 언어·수리·외국어만을, 자연계는 수리와 탐구만을 반영하며, 일반선발에서 인문계는 언어·수리·외국어·탐구를 30:30:30:10 비율로 반영한다. 자연계는 언어·수리·외국어·탐구를 20:30:20:30로 적용한다.

◇대학별 환산점수로 유·불리 핀단=각 대학에서는 표준점수나 백분위를 단순 환산점수로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수능 영역마다 반영비율을 달리 적용, 환산 점수를 통해 선발한다. 대학별 환산점수를 고려할 경우 단순한 표준점수의 합과는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다.

인문계 지원자(표 참조)의 경우 두 학생의 수능 표준점수 총점은 514점으로 동일하지만 대학별 환산점수를 적용하여 보면, 서울대에 지원할 경우 A학생은 516점($=138+128\times 1.25+128+60\times 1.5$), B학생은 517.25점($=123+137\times 1.25+130+62\times 1.5$)으로 수리를 잘한 B학생이 A학생보다 1.25점 높다.

반면, 두 학생이 연세대에 지원할 경우는 다르다. A학생은 324.28점($=138+128+128+60\times 5/7$), B학생은 322.86점($=123+137+130+62\times 5/7$)으로

언·수·외 총점이 높은 A학생이 B학생보다 1.42점 높다.

자연계 지원자의 경우의 계산과정을 동일하게 적용한 결과 서울대는 수리영역이 좋은 A 학생이 0.5점 높고, 연세대는 과학탐구영역 점수가 높은 B 학생이 무려 5.5점이나 높다.

전남대는 각 영역별로 (200/영역 최고점수)×본인 점수라는 변환 표준점수를 사용한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영역 최고점수가 낮은 영역, 다시 말해 쉽게 출제된 영역에서 잘한 학생이 상대적으로 더 유리하다.

이처럼 같은 점수대의 학생이라도 대학별 점수가 다르게 나오므로 표면적인 표준점수보다는 개인이 지원할 대학의 대학별 점수 유·불리를 꼼꼼히 분석, 지원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전략이다.

〈나눔입시컨설팅 연구회〉

◇주요 대학 수능 영역별 반영비율(%)

반영비율(%)/대학	인문계				자연계					
	선발구분	언어	수리나	외국어	팀구	선발구분	언어	수리나	외국어	팀구
서울대	23.5	29.5	23.5	17.7		25	31.3	25	18.7	
연세대	28.6	28.6	28.6	14.2		20	30	20	30	
고려대	28.6	28.6	28.6	14.2	우선	40	20	40		
서강대	27.5	27.5	30	15	일반	20	30	20	30	
성균관대	우선	33	34	33	우선	50	50			
	일반	30	30	30	10	일반	20	30	20	30
한양대		30	30	30	10		20	35	20	25
이화여대	25	25	30	20		25	30	25	20	
중앙대	30	30	30	10		20	30	30	20	
경희대	25	30	30	15		20	35	20	25	
서울시립대	25	30	30	15		20	30	30	20	
전남대	27.5	25	27.5	20		25	27.5	27.5	20	
조선대	30	20	30	20		20	30	30	20	

*우선선발은 일반선발에 앞서 특정 전형요소를 활용해 모집인원의 일정 비율을 선발하는 것이며, 일반선발은 학생부·수능·대학별고사 등의 전형요소를 반영하는 전형.

◇대학별 환산점수 예시(인문계)

인문계	언어	수리나	외국어	사회탐구(2과목)	표준점수	대학별 환산점수		
						서울대	차이	연세대
A학생	138	128	128	512	516	324.28	+1.42	
B학생	123	137	130	62	62	322.86		

◇대학별 환산점수 예시(자연계)

자연계	언어	수리나	외국어	사회탐구(2과목)	표준점수	대학별 환산점수		
						서울대	차이	연세대
A학생	129	137	128	62	518	521.25	+0.25	321.25
B학생	125	135	122	68	520.75	326.75	+5.5	

◇전남대 환산점수 예시(인문계)

인문계	언어	수리나	외국어	사회탐구(2과목)	표준점수	대학별 환산점수		
						서울대	차이	전남대
최고점 학생	137	138	130	70	64			
A학생	125	128	127	64	56	500	925.49	
B학생	124	122	130	60	64			936.45
							+10.95	

조선대 유진철 교수, 항생제 대체 천연 펫타이드 개발

약학대학 미생물·면역학 연구실, 동우티엠씨에 기술 이전

2011년 7월부터 국내에서 사료첨가용 항생제 사용이 전면적으로 금지된 가운데 유진철(사진) 조선대(약학과)교수가 항생제를 대체할 수 있는 천연 펫타이드를 개발해 국내 굴지의 사료첨가제 회사에 기술 이전했다.

유 교수는 이끄는 미생물·면역학 연구실에서는 농림부에서 지원한 '항생제 대체제 상용화 연구'와 농촌진흥청 차세대 바이오

그린 사업단에서 지원한 '전통 김치 발효미생물 분비하는 고 기능성 항균 펫타이드를 이용한 동물 내성세균 감염증 치료제 개발 및 상용화 연구'를 통해 바실러스 서틀리



지난해 7월부터 국내에서 사료첨가용 항생제 사용이 전면적으로 금지된 상황에서 연구진이 개발한 항균 펫타이드는 디자이너 성균군인 MRSVA·VRE·VRSA, 그랑상균 등에 우수한 항균력을 보였으며, 부가적으로 염증을 억제하는 항염증효과 및 항산화 효과를 나타냈다.

유 교수는 국내 굴지의 사료첨가제 회사인 동우티엠씨(주)에 계약액 2700만 원, 20년 간 기술을 사용하고 경상기술료로 매출액의 5%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기술을 이전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광주보건대 피부미용과

미용경기대회 전원 수상

광주보건대(총장 김양혁) 피부미용과는 제 24회 '광주시장배 미용예술경기대회 & 뷰티페스티벌'에서 참가자 전원이 수상했다.

수상 내용을 보면 대상 헤어바이너이트 부문에 신정선 학생, 은상 양스타일과 편창작와인딩 부문에 이문정·이슬비 학생, 동상 편창작 와인딩 부문에 신기희 학생이 수상했다.

광주보건대학교 김명주 교수는 "교육역량강화사업의 일환으로 캡스톤 디자인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실력 향상을 이를 수 있었고, 이번 수상에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광주여대 사회복지학과

청소년 꿈 멘토링 활동